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에 부치는 글

박 영 숙 여성환경연대 60대 으뜸지기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을 펴내는 여성환경연대는 1999년 6월 23일에 발족되었다. 이 연대는 환경관련 여성활동가들, 정책결정자들, 행정가들, 전문가들, 연구원들, 그리고 지역 활동가들을 비롯한 환경을 생각하는 모든 여성들이 나눔과 보살핌의 그물망을 만들기 위해 하나가 된 것이다.

이 책에 담겨진 글들은 여성환경연대가 2000년 11월10일에서 13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한 <여성환경활동가 전국연수회>에서 발표된 강연과 발제들을 보완해서 묶어낸 것이다. 이 글들은 본 연대의 회원들인 필자들이 각자의 활동 현장에서 터득한 실체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읽는 이들로 하여금 오늘의 국내외 여성환경운동의 실상을 가늠하게할 뿐만 아니라 여성환경운동을 통해서 여성운동도 새롭게 짚어 보게 하여 준다.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가부장제 문화에 저항하면서 주체적으로 전개한 주민사회운동, 생협운동, 녹색지역만들기, 환경친화적인 생활운동, 생태환경지킴이운동 등에서의 필자들의 생생한 체험은 읽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족하다. 그리고 필자들이 아직도 여성들이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공생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류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성찰과 반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솔직함과 진솔함을 잃지 않고 있는 점은 발전적인 행보를 예단하게 한다.

여성환경연대의 살림꾼회의에서는 연수회에 대한 평가회를 가지면서 이 회의에 참가했던 52명이 서로 나눈 이야기꺼리들을 여기에 함께 하지 못했던 회원들 그리고 여성환경운동에 관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게 하기위해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을 세상에 내놓기로 하였다.

지난 6월 23일로서 여성환경연대가 출범 2주년을 기념하였다. 지금까지 여성환경연대는 전국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여성환경인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해왔다. 단체간의 연대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환경을 걱정하는 개인 여성들의 연대로서 앞으로의 과제는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 시작은 2002년 9월에 개최예정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의 세계지구정상회의(WSSD 2002)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비롯된다. 때맞추어 발간되는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이 이러한 시기의 한국 여성환경인들의 길잡이로서의 작은 역할이나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펴내는 일에 큰 도움을 주신 박영률출판사의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기고해 주신 필자들, 출판준비로 수고가 많았던 실무진들, 그리고 여성환경연대를 ⁶⁹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신 회원 모두에게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